강렬한 휴머니즘… 그리고 먹먹한 감동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이종필 감독 '탈주'

함무라비 법전을 해독하면 이런 뉘앙스의 글귀가 있다 한다. '요즘 아이들은 참 건방져'라는. 필자가 10대, 20대였을 적에 기성세대로부터 유사한 차별화된 시선을 받았고 그런 기성세대를 우리는 극심한 세대차라며 도외시했던 기억이 있다. 중·장년 시절에는 갓 스무 살이 된 학생들을 이해하기 꽤 버거웠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세대간 차이는 아주 오랫동안 거듭되어온 역사적 사회현상인가 싶다. 전세계적으로 희소한 분단국가의 운명체를 짊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20대는 이전 세대(전쟁을 겪은 세대, 전쟁 이야기를 듣고 자란 세대)와 달리 남과 북에서 각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남한의 MZ세대가 이전 세대와 확연하게 다른 방식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면, 북한이라 해서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영화 '탈주'는 강렬한 휴머니즘과 가슴 먹먹한 감동의 이야기다.

북한의 20대가 탈북하고자 의도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이전 세대와 달라진 그들의 변모를 상상하게 만드는 여지도 제공한다. 10년의 군복무가 막바지인 북한군 중사 임규남(배우 이제훈)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북한 체제를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아 탈북을 꿈꾸는 병사다. 한밤중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와 DMZ 지형을 파악하고 지뢰 표시와 함께 자신만의 지도를 작성해간다. 이를 눈치챈 사병 동혁(배우 홍사빈)은 자신을 남한에 정착한 어머니와 여동생이 보고 싶으니 데려가달라 부탁한다. 기회를 보고 있던 규남과 달리 동혁의 성급한 실행은 화를 불러온다. 결국, 규남과 동혁은 탈주범으로 구금되고 만다.

이종필 감독 '탈주'.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파견 나온 보위부 소좌 리현상(배우 구교환)은 어릴 적 같이 놀던 동생 규남을 탈주범을 잡은 영웅으로 탈바꿈시키고는 사단장 직속 보좌자리까지 마련해준다. 현상이 북한 고위층이 누리는 화려한 파티에 쉽게 융화되듯 현상은 규남에게 그럭저럭 살아가기를 권한다. "허튼 생각 말고 받아들여. 이것이 네 운명이야." 이는 피아니스트로서 러시아 유학까지 다녀온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한현상의 삶의 방식이다. 현상은 자신의 호의에도 2차 탈주를 시도하고 있는 규남을 보며 그간 현상이 키우던 애완견만도 못한 규남이라 생각했건만 자신의 꿈을 위해 질주하는 모습은 현상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놓는 것과도 같아 현상은 규남을 끝까지 추격한다.

가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은 리현상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

우리 대학 음악과 겸임교수였던 그를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어 물었다. "할아버지가 김일성과 동지일만큼 고위급 가문에서 왜 탈북을 결심하셨나요.?" 그러자 그는 처음 만난 사람마다 듣는 고정 질문이라며 도리질을 하더니 "내가 하고 싶은 선곡, 음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고통."이어서였노라 답했다.

예술인에게 체제와 요구는 엄청난 압박이었을 것이고 그를 극복하지 못한 현상은 더 큰 압박감이 내면에 상존하고 있었을 것이다. 코 앞에서 총을 거둔 것은 그나마 밑바닥에 잔존한 예술적 자존감 때문이었나 싶기도 했다. 영화는 규남을 통해 자유를 향한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보여준다. 실패할 자유조차 없는 북한땅보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욕망을 규남은 갈망한다. 현상에게 실패란 피해야 할 절대적인 것이라면, 규남에게 실패란 설레는 도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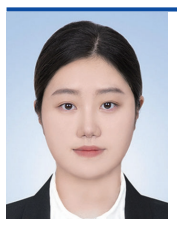
필자가 운영하는 교과서연구회에서 새터민(탈북민)을 초청,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없는 북한의 교과서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 있다.

바로 전날 카톡을 통해 그들의 교과서 사진을 북한으로부터 전송받아 보여주던 사실도 통일이 목전에 온 듯 놀라움이 컸지만, 그녀의 개인사도 적잖이 놀라웠다.

그녀는 고위간부층 자녀라 실상 북한에서의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미디어를 통해 쌓아온 남한에의 동경을 거둘 수 없어 탈북을 했노라 했다. 어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지만 두 번째 탈북을 감행했던 그녀는 "한번 맛본 터라 다시 탈북을 하게 되더라."고 말했다. 그녀의 선택은 영화 속 규남의 결연한 의지와 닮았다는 생각이다. 7월3일 개봉.

백제예술대학교 명예교수

외면받는 국내산 우유



취재수첩

박소영
취재1부 기자
soyeong.park@jnilbo.com

올해 우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가와 유업계간 원윳값 협상이 좀처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말 가격 조정을 위한 회의를 완료했어야 하지만, 최대 인상분을 원하는 낙농가와 동결을 요구하는 유업계 사이 견해차로 이달 말까지 협의 기간이 연장됐다. 예상된 올해 원유 가격 인상 범위는 생산비 상승분에 지난해 음용유 사용량이 전년 대비 2% 감소한 상황을 반영, 생산비 상승분의 0~60%인 리터 당 0~26원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원윳값 협상 소위원회는 정확한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달 말까지 용도별 원유가격 협상과 용도별 물량 협상,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편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협의된 가격은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1일부터 반영된다.

이번 가격 협의 쟁점은 낙농가와 유업계의 원윳값 인상폭 줄다리기다.

낙농가는 사룟값 등 매년 증가하는 생산비로 원윳값 최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낙농가의 우유 생산비는 리터당 1002.85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권고한 최대 인상폭인 26원도 생산비 증가율의 60%일 뿐이라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업계는 지난 3년 동안 오른 원윳값, 물가상승 및 음용유 사용량 하락과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유업계가 사용한 음용유 량은 169만톤으로 전년(172만5000톤)보다 2% 낮아졌다.

현재 유제품 가격은 음용유용 원유 기준 리터당 1084원으로 최대 인상폭 결정시 1110원까지 늘어난다. 원윳값이 오르면 치즈, 아이스크림 등 관련 가공식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8월 낙농진흥회가 원유 가격을 8.8% 올리자, 롯데 웰푸드는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최대 25% 올렸으며 빙그레도 메로나 아이스크림 가격을 17.2% 인상한 바 있다.

동결 또는 인상, 이번 협의로 결정될 결과 모두 개운치 못하다. 동결시 지역 내 많은 낙농가가 경영난에 시달릴 것이며 유업계도 동결이 된다고 해도 인건비 등 각종 제반비용 상승으로 우유 제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상이 확정될 경우, 우유 제품마저 줄인상 기조에 동참하며 소비자의 피로를 더하게 된다. 최근에는 국내 우유 제품이 아닌 저렴한 가격의 해외 멸균우유 제품에 시선을 돌리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원유 가격 인상폭 협의도 중요하나 국내산 우유가 외면받지 않기 위해 정부, 낙농가, 유업계간 미래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北교당 한약방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